

존경하는 JSBMF 선교회 동역자 귀하

좋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직까지 이 땅에 남겨두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토록 인도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2015년도에 연약한 파라과이와 종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을 의지하여 파라과이에 발을 딛고 사역을 시작한지 3년 차가 됩니다.

“파라과이여, 다시 태어나라!”는 모토로 선교사역의 중심을 잡고 어린 아이들을 향한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선교 소명은 **고아사역**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생활하며 받은 도전은 진정한 의미에서 고아들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난잡한 동거로 인해 아이를 낳고 살다 기를 수 없게 됐을 때 국가에서 데려다 맡기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갓난 아이 때부터 데려다 기르는 **무료기숙학교**입니다.

정식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파라과이 전국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형제 많은 아이들 중에서 선택하여 무료숙식과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자라나게 만들어 부패와 거짓이 난무한 파라과이 전역에 빛을 발하게 만드는 사역입니다.

이번 2015년의 사역보고를 나누었기에 지난 12월의 소식을 보냅니다.

★ 성탄기념예배



지난 12월23일에 성탄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80여명의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명의 어는과 아이들 이 함께 야기 예우 단생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성탄기념예배에서 기대했던 찬양팀이 찬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10 개월의 시간도 저들에게는 짧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 1월 한 달 동안

매일 모여 집중적으로 기타를 가르치는데 한국분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런지 기도할 따름입니다.

특별한 것은 가정회복교회가 필요로 했던 오토바이 용달차를 몇몇 분의 후원으로 전달했습니다. 교인들의 픽업과 개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용도로 지금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극심한 홍수 피해 ※

지금 파라과이는 지난 12월 초 순부터 시작된 홍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극한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지만 거의 매일 쏟아지는 비와 정부의 무능함이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 지역의 홍수 피해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라 정부의 지원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저들은 갈 때가 없어 판자로 임시 처소를 만들고 길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가정회복교회를 통해 12월29일에 한 차례 구호품을 전달했지만 너무 미미한 것이기에 다시 한번 수재민들을 위해 구호품을 전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 것도 생각지 않고 순수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호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1월23일(토) 200가족에게 한 끼 식사와 함께 전달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홍수 소식에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주저하다 그래도 마음을 다해 동역자 분들께 알리고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 소식을 전함



니다. 한 끼 외식하



는 것 만이라도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5년도 재정보고와 함께 파라과이 선교소식을 전해야 함에도 미리 선교소식 만을 보내드리는 이유도 홍수피해를 당한 저들과 함께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함입니다.

1월23일(토요일) 오후6시: 수재민 구호품 전달과 한 끼 식사 대접.

★ 복합건물 1동 건축 계획(성전, 교사, 기숙사, 식당)

금년 후반기에는 성전을 포함한 복합건물 1 동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현실이 대부분의 건축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기에 건축비가 많이 들고, 외국인이 하는 일이라면 더 많은 인건비와 나태함으로 일군 고용해서 일시키는 것이 힘들기에 시간의 여유를 갖고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고는 어렵기에 시간을 두고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시작할 건축을 위해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셔서 선교 초년병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투명한 재정관리가 선교의 초석을 쌓는 지름길이라 생각해 첫 해였던 작년부터 후원해 주신 동역자 분들께 재정보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선교보고 만이 아니라 재정보고도 함께 보내드려야 하는데 아직 정산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속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배 목사님과 선교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에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희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제단과 가정과 생업에 행복과 강건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샬롬.

파라과이 선교사
남학현, 남옥진 올림

과라과이 선교사
남학현, 남옥진 올림

1.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2. 충분한 언어 구사를 위하여
3. 자동차 구입을 위하여
4. 복합건물 1동 건축을 위하여
(성전, 교사, 기숙사, 식당)
5. 희망 고아원, 희망 무료기숙학교를 위하여
6. 농장 만들기를 위하여